

민감계층 실내공기질 개선 사업 확대... 환경부 및 15개 기업 힘모은다

-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확인
- 민간기업 업무협약 체결로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설비 자발적 기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2월 12일 오후 엄마사랑 어린이집(서울시 양천구 소재)을 방문하여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4.12~'25.3) 동안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현황을 확인하고, 민감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15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한국환경공단 및 실내환경관리센터(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국대) 등 환경부 산하기관 대표를 비롯해 엘지(LG)전자 등 협약 참여 15개 기업* 대표 등도 참석한다. 행사 장소인 엄마사랑어린이집은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민감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사업' 지원을 받은 곳이다.

* 나옴, 마스윈, 벤티웰, 아키테코그룹, 에어트러스트, LG전자, 은성화학, 이지네트웍스, 정민, 지에이홀딩스, 칸필터, 케이워드, 테스트닉, 하츠, 힘펠

환경부는 올해 민감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사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마련했다. 이 협약을 통해 지난해까지 국비를 통해 설비를 지원했던 사업을 민관 협력 체계 방식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환경부는 예산 및 사업을 총괄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어린이집 650곳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한다. 실내공기질 관련 전문기관인 실내환경관리센터는 측정 결과를 토대로 60곳의 시설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업무협약에 참여한 실내공기질 관련 기업을 통해 △환기설비, △공기청정기 등의 제품을 기부받아 일부 어린이집에 지원한다.

한편 환경부가 지난해(2024년) 시설 개선을 지원받은 어린이집 60곳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개선 전후를 측정한 결과, 폼알데하이드 71%, 총부유세균 57%, 곰팡이 91% 등이 줄어든 효과가 나타났다.

아울러 환경부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특별 점검하고 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민감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남은 계절 관리제 기간에도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라면서, “이번 업무협약은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기업들의 참여가 시작되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이러한 따뜻한 선행이 지속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민감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업무협약서.
2. 업무협약 참여기업 목록.
3. 민감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사업 개요.
4. 실내환경관리센터 개요.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생활환경과	책임자	과 장	안중기 (044-201-6790)
		담당자	사무관	최석 (044-201-6919)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 민감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 업 무 협 약 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실내환경관리센터, 실내공기질개선 협력기업은 상호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민감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유해 실내공기질에 취약한 민감계층 보호를 위해 협약 참여자 간 필요한 협력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협약 참여자는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민감계층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민감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한다

제3조(공동협력) ① 협약 참여자는 본 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민감계층 이용시설 공기질 측정·진단 및 시설개선 지원 업무
2. 민감계층 이용시설 시설관리자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관리 교육 업무
3. 기타 협약 참여자의 협업이 필요한 사항

② 이 협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 참여자 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4조(비밀의 유지) 협약 참여자는 협약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본 협약의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5조(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고, 만료 1개월 전 기관 간 합의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본 협약 체결을 증명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협약서 19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 2**업무협약 참여기업 목록**

□ LG전자 등 15개 민간기업에서 실내공기질 관련 자사제품 현물 형태로 기부

기업명	'25년 현물 지원 제품
(주)나옴	- 환기설비 필터
(주)마스윈	- 환기설비
(주)벤티웰	- 환기설비
(주)아키테코그룹	- 친환경 도료
(주)에어트러스트	- 실내공기질 통합관리 시스템
LG전자	- 환기설비 - 에어컨
은성화학(주)	- 환기설비
(주)이지네트웍스	- 공기청정기(부유세균, 바이러스 정화)
(주)정민	- 환기설비
(주)지에이홀딩스	- 공기청정 실링팬형 순환장치
(주)칸필터	- 공기청정기(실내외 필터재생 공기정화)
케이웨더(주)	- 환기설비 - 미세먼지 측정기
(주)테스토닉	- 미세먼지 흡입매트
(주)하츠	- 레인지후드 - 화장실 배기팬
(주)힘펠	- 환기설비 - 화장실 배기팬

붙임 3

민감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컨설팅 사업 개요

□ 목적

-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측정 및 시설개선을 지원하여 국민 건강 보호

□ 대상

-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등 민감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 법적 근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의2(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 지원내용

- 실내공기질 유지·권고 기준 측정*·진단 및 설비지원을 통한 시설개선
* 10개 항목(PM10, PM2.5,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CO₂, CO, N₂O, 라돈, TVOC, 곰팡이)
- 자율적 관리를 위한 실내공기질 담당자 교육

□ 추진 현황

- '23년까지 민감계층 이용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 '24년부터 특정 시설군별 집중지원 방식으로 운영

지 원 연 도	대 상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내용		
		측정·분석	시설개선	교 육
'21년(3차)	민감계층 이용시설	110개소	20개소	412명
'22년(4차)	민감계층 이용시설	200개소	19개소	444명
'23년(5차)	민감계층 이용시설	200개소	26개소	408명
'24년(6차)	어린이집	600개소	60개소	624명
'25년(계획)	어린이집	650개소	60개소	약600명

□ 사후관리

- 시설개선 후 실내공기질 재측정을 통해 공기질 개선여부 확인

□ 개요

- (목적)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라 실내 오염물질로 인한 실내공기질 관련 조사·연구, 기술개발 등의 업무 수행
- (지정 기한) 지정일로부터 3년
- (센터 기능) 실내공기질 조사·연구, 기술개발, 교육·홍보 등에 활용

가. 실내 오염물질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
나. 실내 오염물질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관리 등을 위한 기술개발
다. 실내공기질 관련 업무에 대한 교육·홍보
라.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DB 구축
마. 실내공기질 관리 관련 정보제공 및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바. 실내공기질 관리 관련 빅데이터 구축·분석 등 과학적·기술적 지원
사.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

□ 현황

- 현재 기준 2개소 지정: 한국건설기술연구원(`23.11), 건국대학교(`24.11)
(`25.下 1개소 추가 지정 예정)